

Part 2 — 시장을 읽는 눈 (Q&A)

2월 2주차 Q&A — 고변동성 장세, 기회와 함정을 구분하는 법

· 정리 2026-05-13

차트로 미래 예측 X — M·W는 사후 패턴

박종훈의 경제로드맵 다섯 번째 Q&A. 본 회차는 Q&A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긴급 매크로로 편성됐습니다. 이유는 최근 코스피·금값의 엄청난 변동폭.

강사가 짚는 핵심은 단호합니다 — 차트로 미래를 예측하지 마세요. M자(상승장 끝)·W자(하락장 끝)는 그래프가 완성되고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사후 패턴.

미래 예측이 아닌 변동성 대응을 위해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.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은 시장 매매의 80%를 차지하는 AI 알고리즘 — 인간 심리에 사로잡히면 가장 비쌀 때 사고 가장 쌀 때 파는 오판을 합니다.

탐욕이 느껴질 때 레드팀(외국인 매도 분석)을 가동하고, 공포가 느껴질 때 펀더멘탈(거시 환경)에 집중하세요 — 강사의 결론입니다.

80%

현재 미국 주식 매매에서 AI 알고리즘이 차지하는 비중 — 우리가 상대할 적

지금 코스피 하락이 워런 버핏의 평생 20번 투자 기회 중 한 번을 쓸 절호의 찬스일까요?

Q1 도입 — 코스피·금값 변곡점

본 회차는 Q&A 시간이지만 강사가 **긴급 매크로**로 편성했습니다. 이유는 최근 코스피·금값의 엄청난 변동폭. 변동성이 클 때 자주 사고팔면 전 재산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 의식.

강사가 짚는 두 가지 그래프 패턴 — **M자**(상승장 끝물 더블탑·트리플탑)와 **W자**(하락장 끝물 더블바텀). 둘 다 인간 심리(탐욕·공포)와 시장 트랩에서 만들어지는 패턴입니다.

다만 **핵심 경고**: M·W는 그래프가 완성되고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습니다. 진행 중일 땐 누구도 모름. "M자형 나오면 매도"는 말도 안 되는 소리 — **확증 편향**에 빠져 전 재산을 잃을 수 있는 함정.

그럼에도 알아야 하는 이유 — **미래 예측이 아닌 변동성 대응**을 위해서. 다음 카드부터 M자 메커니즘부터 봅니다.

M자 = 탐욕 + 시장 트랩

상승장 끝의 M자 메커니즘은 인간 심리와 시장 트랩의 정확한 합작입니다.

1단계 첫 봉우리 — 모두가 강력한 상승세에 취해 환호할 때. **2단계 중간 골짜기** — 스마트한/회의적 세력이 대규모 매도하는데, 포모(FOMO) 개미가 "나만 못 샀네" 빗 내서 대거 진입. **3단계 두 번째 봉우리** — 외국인 매도 멈추고 숨고르기, 전 고점 근처에서 개미가 "가즈아" 외치며 대량 매수. **4단계 매도** — 외국인 두 번째 매도 단행.

물량이 너무 많으면 두 번이 아닌 세 번 매도 = **트리플 탑**.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건 항상 개인들의 탐욕이 끝까지 갔을 때입니다.



외국인 = 외국계 초거대 은행

강사가 짚는 "외국인"의 실체는 단순 외국인이 아닙니다. **외국계 초거대 은행** — 자본력 만땅 + 한국 시장을 냉정하게 분석 + 감정 없음 + "코스피 만세" 외치지 않음.

큰손이 한꺼번에 안 파는 이유 — 물량이 너무 많아 한꺼번에 팔면 주가 폭락해서 더 싼값에 매도해야 함. 그래서 **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경향** — 아직 상승 여력 있을 때부터 매도 시작.

이게 강사가 짚는 "외국인이 좀 성급한 경향"의 이유입니다. 너무 일찍 팔기 시작해야만 개미들이 진입해서 좀 더 먹을 게 있고, 그래야 개미들이 다시 주가를 끌어올리거든요.

당장 2026-02-05·06에 외국인이 5조 + 3.3조 매도했지만 — 이게 끝일까요? 강사는 "그럴 가능성 없다"고 단언합니다. 외국인은 정말로 돈이 많고 한국 주식도 정말 많아 이걸 한꺼번에 매도하면 폭락하니까요.

다음 카드에서 시장의 또 다른 적 — AI 알고리즘을 봅니다.

AI 알고리즘 매매 80% — 시장의 진짜 적

강사가 짚는 시대 핵심 — 현재 주식 매매의 80%가 AI 알고리즘.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은 인간이 아닌 AI인데, 우리가 인간의 상식·공포·탐욕에 사로잡혀 매매하면 항상 파동에서 가장 비쌀 때 사고 가장 쌀 때 파는 오판을 합니다.

외부 자료가 강사 진단을 정확히 검증합니다. [미국 주식 매매 80%가 알고리즘, HFT\(High-Frequency Trading\) 단독으로 55% 차지](#). 글로벌 알고리즘 거래 시장은 2025 \$28.47B → 2026 \$32.77B. AI·머신러닝 통합으로 "기술적 우위가 곧 경쟁 우위". (†2)

이 시장에서 인간이 인간의 심리로 거래하면 — 거대 은행 + AI의 합작 함정에 빠집니다.

미국 시장 매매 비중 — 인간 vs AI



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은 AI — 인간 심리에 사로잡히면 함정

거대 은행의 포모 개미 물량 추정

외국계 거대 은행이 무서운 진짜 이유 — 포모 개미 물량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. 어떻게?

첫째 개인 유동성 포켓 탐색 — 어느 가격대에서 개인들이 매수/매도하는지 데이터로 파악. 둘째 주문 흐름 독점 파악 — 거대 은행만 볼 수 있는 정보. 셋째 AI 동원 — 더 정교한 분석.

결과 — 거대 은행은 "어디까지 떨어뜨리면 개미들이 패닉 셀링하고, 어디까지 올리면 다시 매수하는지"를 정확히 압니다. 인간 심리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노출된 시대.

강사가 "인간의 심리를 버려야만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이길 수 있다"고 강조하는 이유 — 우리가 인간으로 남아 있는 한 거대 은행이 그 심리를 정확히 읽어내기 때문입니다.

그래서 차트만 믿고 매매하면 안 되는 이유가 더 절실해집니다 — 다음 카드에서 그 차트의 함정을 봅니다.

차트쟁이 함정 — 외국계 은행이 알고 있다

차트 설명에 흔히 나오는 "M자 오른쪽 어깨가 전 고점보다 낮아야 하락장" — 이걸 **외국계 거대 자본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.**

왜? 외국계 거대 은행이 이런 차트 분석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— 오히려 "개미들 안심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두 번째 어깨를 살짝 더 높게" 만들 수도 있습니다. 그래야 개미들이 "야 이거 상승장인가 보다" 더 많이 돈을 넣게 되고, 거대 은행은 훨씬 비싸게 떠넘길 수 있거든요.

이게 왜 가능한가? **미국 나스닥·S&P 500은 외국계 거대 은행조차 마음대로 못 함** — 시장이 너무 큼. 하지만 **코스피는 외국계 자본력 대비 작아서 마음대로 쥐락펴락 가능.**

강사 결론 — "증시 미래를 자신의 상상에 끼워 맞추지 말고 M이든 W든 일단 변동성이 발생했으면 그때 대응해야 한다."

2/5 5조 + 2/6 3.3조 — 사상 최고

본 회차의 핵심 데이터 — 2026-02-05·06 외국인 현물 매도 정량. 강의 직전 이틀 동안 일어난 사건.

강사는 이를 "단순 무시할 수 없는 신호"로 짚습니다. 두 가지 이유 — (a) "외국계 거대 은행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대량 매도할 리 없음" (b) **현물 투매 + 선물 미매도**는 "지수 누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당장 팔고 떠나는 게 목표"라는 신호.

양매도(현물+선물)면 "주가 떨어뜨린 후 매수 → 끌어올림" 패턴이지만 현물 집중 매도는 진짜 떠나는 의지입니다.

■ 외국인 2/5·6 매도 — 한국 역사 1·2위

날짜	매도 규모 / 순위
2026-02-05 (목)	5조 원 — 사상 최고
2026-02-06 (금)	3.3조 원 — 사상 두 번째
2주 누적	~15조 원

한국 매수 여력 약화 — 빚투 + 국민연금

외국인이 이렇게 매도하는데 한국이 그걸 떠받칠 여력이 있나? 강사가 짚는 두 축이 모두 약화됐습니다.

개인 빚투 — 사상 최대. 이미 빚 내서 살 수 있는 개인들의 숫자가 굉장히 줄어든 상태. **국민연금 한국 주식 비중 — 19%대 추정 (룰 14.9%).**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룰 초과 매수해서 19%대까지 도달한 상태로, 추가 매수 여력이 사실상 소진.

결과 — 외국인의 대량 매도 흐름에 대해 한국에서 떠받쳐 줄 자금이 부족. 확률적 측면에서 **M자를 만들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음.**

다만 "M자가 만들어져야 M자인 걸 안다"는 강사 원칙대로 단정 X. 다음 카드에서 더블탑 기간이 며칠 아닌 몇 달도 갈 수 있다는 사례를 봅니다.

한국 매수 여력 약화 상태

매수 여력	상태
개인 빚투	사상 최대 — 추가 여력 ↓
국민연금 한국 주식 비중	19%대 추정 (룰 14.9% 초과) — 개입 여력 소진

더블탑은 며칠 아닌 몇 달도

강사가 짚는 중요한 사실 — 더블탑 기간이 며칠짜리가 아닌 몇 달까지 갈 수 있습니다. 세 사례:

2000년 닷컴 버블 — 한국 코스피 99-07~10 1,027→760 → 2000-01 가짜 반등 1,059 (전 고점보다 더 올라감) → 1년 동안 500까지 급락. 3개월 축제. **1994년** — 1,138→900 (94-11~95-02) → 95-03~05 1,000 가짜 반등 → 600까지. 외환위기 98년까지. 3개월 축제. **1997년 외국인 매도 후** — 8개월 상승 → 대폭락 (반 토막 이하).

3번 모두 결국 코스피 하락으로 끝남. "외국인이 매번 맞는 건 아니지만 결국 그 방향으로 흘러간다"는 사실 — 외국인 매도는 단순 무시 대신 **경고 신호**로 받아들이는 게 강사의 정확한 진단.



한국 30년 5배 vs 미국 몇십 배

강사가 짚는 한국 주가의 한계 — 한국 코스피가 처음 1,000 넘은 게 **1994년**. 이제 5,000이면 30년 동안 기껏해야 5배.

많은 사람들이 "억울하다,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데, 미국이 몇십 배 오르는 동안 우리는 겨우 5배? 코스피 만 점은 돼야 한다" 생각합니다. 그러나 강사가 짚는 사실 — **지난 30년 지속 상승은 미국 증시뿐**. 유럽이나 일본조차 1998년 고점 근처에서 못 벗어남.

한국이 미국과 똑같이 몇십 배 올라야 한다는 주장은 무시할 만합니다 — 지속 상승은 미국 뉴욕 증시밖에 없고, 지금 그 뉴욕 증시조차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. 본강의에서 자세히 풀어주실 예정.

다음 카드부터 하락장 끝의 W자 메커니즘을 봅니다.

W자 = 공포 + 시장 트랩

하락장 끝의 W자 메커니즘:

1차 바닥 — 공포 극대화로 패닉 셀링. 알고리즘이 엄청난 속도로 내리꽂음. **중간 반등** — 공포에 판 개미들이 "괜히 팔았네" 다시 진입. **2차 바닥** — 1차 바닥 버틴 개미들에게 실망 + 중간 반등 진입 개미들에게 재차 공포 → 또 매도. **진짜 반등** — 거대 자본 대규모 매수와 함께 본격 상승.

여기서도 차트쟁이 함정 — "두 번째 하락이 작으면 상승" 분석을 외국계 거대 은행이 너무 잘 알고 있어 일부러 두 번째 하락을 더 크게 만들기도 함. 코스피·은 시장처럼 시장 크기 작은 곳에서 가능한 트릭.

W자 메커니즘 4 단계

1단계

1차 바닥

공포 극대화 + 알고리즘 패닉 셀링



2단계

중간 반등

개미들 "괜히 팔았네" 재진입



3단계

2차 바닥

1·2차 개미 모두 실망/공포 → 또 매도



4단계

진짜 반등

거대 자본 대규모 매수 + 본격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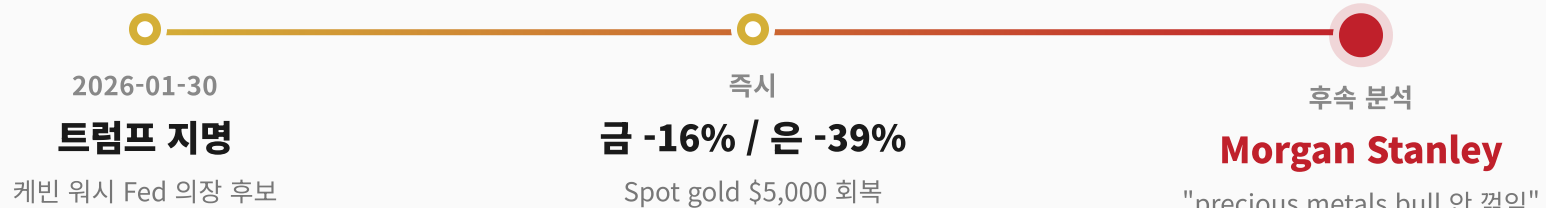
케빈 워시 등장 → 금값 폭락

본 회차 직전 큰 사건 — 케빈 워시가 Fed 의장 후보로 지명되며 금값 폭락. 많은 언론이 케빈 워시 성향을 분석하지만 강사가 짚는 더 중요한 시각이 있습니다.

[2026-01-30 트럼프 케빈 워시 지명 → 금 16% / 은 39% 폭락](#). spot gold \$5,000까지 회복. 다만 [Morgan Stanley는 "precious metals bull은 깨지지 않을 것"이라 분석](#). (†3)

강사 진단 — **개인이 거시 환경을 바꿀 수 있느냐**가 핵심 질문. 만약 바꿀 수 없는 환경이라면 케빈 워시가 어떤 성향이든 거시 흐름에 끌려갑니다.

■ 케빈 워시 지명 영향



†3 케빈 워시 지명 + 금 폭락 fortune.com

거시 환경이 케빈 워시 선택지를 막음

강사가 짚는 핵심 질문 — 케빈 워시 한 명이 거시 환경을 바꿀 수 있나? 답은 **아니다**.

미국 빚을 미국인이 소화 못 하고 해외도 사주지 않습니다. 그러면 미국이 빚을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결국 연준이 사줄 수밖에 없습니다. 케빈 워시가 단기적으로 금값 하락 원인이 될 수 있지만 **장기 거시 환경은 그 선택지를 막아놓은 상태** → 금값 하락 때 매집이 유효.

Morgan Stanley의 "bull 안 꺾임" 분석과 정합. "오히려 금에 가장 치명적인 건 경기 침체" — 직장 잃은 사람들이 금 귀걸이·반지 다 팔게 되면 금값 하락 가능. 펀더멘탈 분석이 단기 인물 분석보다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.

다음 카드에서 강사가 짚는 워런 버핏의 시각 — 20칸 펀치 카드를 봅니다.

워런 버핏의 20칸 펀치 카드

강사가 결론으로 가는 길에 짚은 워런 버핏의 비유 — "투자자들이 평생 동안 딱 20번의 투자 기회만 가질 수 있는 **20칸짜리 펀치 카드**를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라."

펀치 카드 — 한 번 구멍 뚫으면 다시 같은 구멍 뚫는 게 의미 없는 그 종류. 비유의 의미는 **딱 20번만 신중하게 투자하라**는 것입니다.

강사가 본 회차 청중에게 직접 던지는 질문 — "이번 주가 하락이 그 20번 중 한 번을 쓸 만한 절호의 기회인가?" 강사는 명시적으로 "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 보시는 게 좋다"고 짚었습니다.

확률적으로 한국은 외국인 사상 최고 매도 + 매수 여력 약화로 M자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러나 진행 중일 땐 알 수 없는 게 M자/W자의 특성 — 펀치 카드 한 칸을 쓸 절호의 기회인지는 신중하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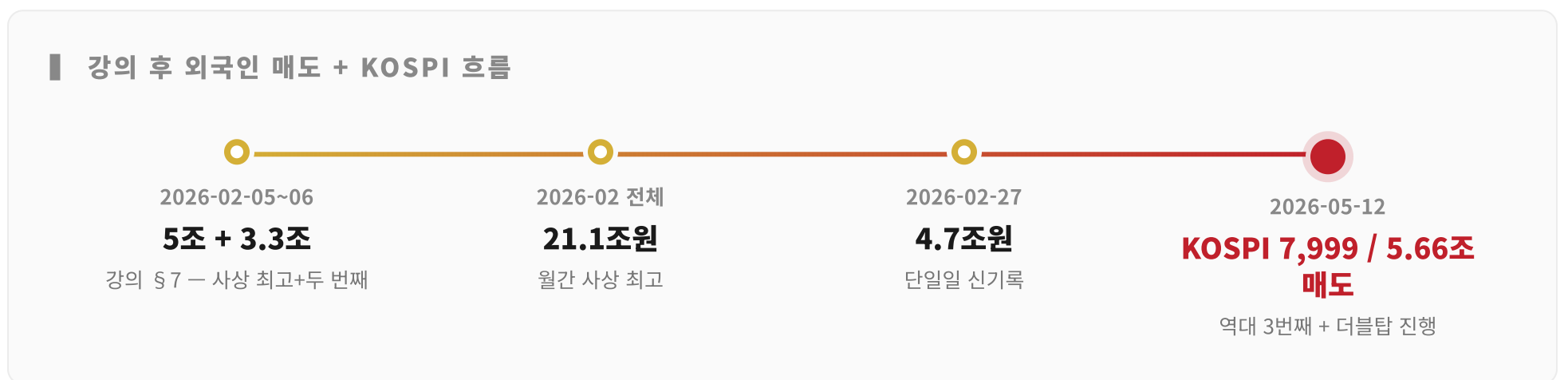
다음 카드에서 강의 후 3개월 흐름을 봅니다 — 강사의 진단이 어떻게 검증됐는지.

2026-02 외국인 한국 매도 21.1조원 — 월간 사상 최고

강의 후 흐름이 강사 진단을 정확히 검증했습니다. [2026-02 전체 외국인 매도 19.9~21.1조원 \(\\$14.8B\)](#) — 한국 역사상 월간 최고. 2/27 단일일 매도 4.7조원으로 또 신기록.

그러나 강사가 짚은 "외국인이 매번 맞는 건 아닌" 패턴도 동시 발현. [2026-05 KOSPI 장중 7,999 도달, 증가 7,643. NPS 1,700조\(\\$1.25T\) + 회수익률 15%+ \(국내 주식 한도 일시 중지\)](#). 외국인 5/12 5.66조 매도 = 역대 3번째. 더블탑 두 번째 봉우리가 길게 진행될 수 있다는 강사 진단 정합. (+1 · +4)

결국 강사가 짚은 "확률적으로 M자, 그러나 진행 중일 땐 모름" 분석이 시간 갈수록 검증되는 흐름. 외국인 매도와 한국 매수의 균형이 어디서 깨지는지 — 그게 진짜 변곡점.



†1 KOSPI 7,999 / NPS 1,700조 sedaily.com †4 2/27 외국인 매도 신기록 bloomberg.com

강의가 짙은 관찰 신호 4가지

본 회차에서 강사가 명시한 결론은 명확합니다 — **차트로 미래를 예측하지 말고 변동성에 대비하라.**

구체적 행동 가이드는 두 가지 — **탐욕이 느껴질 때 레드팀(외국인 매도 분석) 가동 + 공포가 느껴질 때 펀더멘탈(거시 환경)에 집중.** 외국인 "돌아왔다" 헤드라인은 매수 비율 확인이 필수.

워런 버핏의 20칸 펀치 카드 — 평생 딱 20번의 투자 기회. 지금이 그 한 번을 쓸 절호의 기회인지 신중하게. 다음 강의 part 2-2강에서 "왜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는가" — 거시 환경의 펀더멘탈을 본격 풀어주실 예정입니다.

차트로 미래를 예측하지 마세요. M자·W자는 그래프가 완성되고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사후 패턴입니다. 미래 예측이 아닌 변동성 대응 도구 — 탐욕이 느껴질 때 레드팀(외국인 매도 분석)을 가동하고, 공포가 느껴질 때 펀더멘탈(거시 환경)에 집중하세요. 워런 버핏의 20칸 펀치 카드 — 평생 딱 20번의 투자 기회 중 지금이 그 한 번일까요.

다음 강 — Part 2-2강

왜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는가?

40년 저물가 시대 종언 + 세계화·인구·아마존 3축 무너짐

본 콘텐츠는 강의 정리 목적이며 특정 자산의 매수·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. 외부 자료(+1~+4)는 강의 시점 이후의 정량 변화와 사례 후속을 보강합니다.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.